사무직 여성 91년 가을 통권 6호

<현장의 소리>

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남녀를 차별해 온 은행의 여행원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사자인 여행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자.

여행원제 폐지,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

안찬숙 (한국신탁은행 구로지점)

아침부터 밀려드는 고객을 상대로 돈 세고 기계 치다보면 오후부터는 눈이 침침해 오고 어개와 허리가 결리기 시작한다. 이어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손가락과 팔이 쑤시고 아파 주물러야 할 때쯤이면 은행문이 내려간다.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던 소식인가!

그날도 이렇게 지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퇴근하려다 펼쳐본 신문기사에는 온몸의 피로와 통증마저 싹 가시게 하는 소식이 있었다.

‘ 여행원제도 폐지 ’

노동부에서 발표한 기사였다.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던 소식인가!

‘ 여행원에서 행원으로 전환하는 전환고시제도를 폐지하고…… ’

드디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대가 오는 것인가?

성차별에서 오는 모든 불평등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반갑고 설레는 마음에 하루 종일 쌓인 피로도 잊은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하였다. 그 후 사나흘 동안 계속되는 보도를 듣고 보면서 왠지 보도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고 좋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느낌이 스쳤다.

먼저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노동조합과 은행 경영진이 노사협상을 통해 합의 가 이루어졌다거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사동수의 협의회 등이 설립되었다는 언급이 없었다. 어찌 보면 앞으로 시행하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의 일방적인 지시였다고나 할까.

또한 기사의 내용대로 여행원과 행원을 구분하지 않고 신규 채용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이미 근무 중인 여행원은 어떤 방법으로 현재 분리된 호봉체제에서 단일호봉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그 예산확보의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더구나 직무의 성격에 따라 분리채용 하려는 의도를 담은 내용은 차별임금을 정당화하려는 저의를 감춘 고도의 기만술책이 아닌가!

결국 그 기사는 향후 여행원제도 개선에 따른 정책대안 없이 한 입에 덥석 물기 좋은 미끼와도 같은 것이었다. 직무직능급이라는 낚싯바늘 끝에 걸린 미끼가 바로 여행원제 폐지이다. 물었다 하면 차별임금을 정당화하는 낚시 바늘에 걸릴 뿐이다.

여행원 업무, 고객에겐 중요업무 그러나 임금에선 보조업무

어느 직장에서건 남녀 차별의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심각하다. 때론 극한적으로 남성대 여성의 성대결로 치닫기까지 한다.

특히 은행의 경우 모든 창구업무를 여행원들이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보조업무로 전락시켜 차별임금을 정당화하고 있다. 은행에서 창구업무는 예금의 입출금과 공과금의 수납, 통장 개설과 해약 등인데 언뜻 보기에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여행원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첫째는 모든 입출금이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착오가 생기면 그 여행원이 그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

둘째는 친절해야 한다. 경영진은 창구에서 고객을 맞이할 때부터 일을 마치고 돌아설 때까지의 인사기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의 고객에게 보통 6번의 인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훈련시킨다. 이 훈련을 할 때에는 창구에서 친절한 고객응대가 가장 중요한 업무인 양 온갖 감언이설로 그 중요성을 확인시키지만 임금이라든지 업무배치에 관하여 남녀평등을 주장하면 곧 여행원의 업무를 단순보조 업무로 전락시켜 버리고 만다.

셋째는 전국 점포가 온라인화 되면서 창구에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입출금의 종료를 확인하는 결제까지 하고 있으니 세 가지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은행 이용의 생활화로 고객이 증가하면서 업무량이 폭주할 때에는 점심을 거르기도 하고 화장실에도 못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볼 때 여행원들의 노동환경은 지극히 열악하고 그 업무의 중요성 또한 흔히 남행원들이 하고 있는 대출업무와 비교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채용당시부터 여행원과 행원으로 구분해 놓고 창구업무에 여행원을 배치해 놓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렵고 오랜 과정을 거쳐 행원으로 전직되었다 해도 여전히 창구업무에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업무의 성격이 단순하거나 복잡한 의미를 떠나서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창구업무에 배치되어야 하고 그것이 보조업무인 양 왜곡하여 임금차별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순 없어

그렇다면 우리 여행원들은 이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노동부에서 발표한 대로 무비판적으로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면 현재보다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고 임금이 차이는 갈수록 커질 것이 확실하다.

이에 우리 여행원들은 새로운 시각과 의식으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자세,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실천의지를 노동조합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세, 여성의 평생노동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며 쟁취하려는 자세가 절대 필요한 때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현재 은행원에게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세우는 연구비에 노동조합비의 일부를 투자하여야 한다. 공무원, 교직원들처럼 남녀차별 없는 전직급 단일호봉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해서 현재의 분리 호봉제를 단일호봉제로 바꿔야 한다.

다음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설정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직무평가의 시도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을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셋째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된 안건을 노사협의에서 합의하여 그 계획에 따라 시기별로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향후 몇 년 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제는 임금투쟁 대마다 차별임금의 간격을 좁히려는 여성들과, 차별을 마치 기득권처럼 보면서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남성들 간의 대립으로 빚어지는 분열과 체력소모는 끝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대립의 대상이 아닌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

는 동지이다.

넷째는 여성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경영진과 밀착되어 소수 이익집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행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간부의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선출과 적극적 저지, 따뜻한 격려와 냉정한 비판 등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권리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여성들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서 진정한 변화가 오고 그것이 극대화될 때, 진정한 여성해방의 서광이 비춰질 것이므로,

사무직 여성노동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8만 여행원 여러분! 금융기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이 다른 직종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정확히 알고, 여성해방이 곧 노동해방의 척도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 모든 노동자가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위하여 함께 투쟁하자!

<현장이야기>

달콤한 꿀인가, 꿀을 가장한 독인가

음미애 (중소기업은행 화양동지점)

지난 7월 3일, 지점내의 계 이동으로 계속되는 야근과 겹치는 모임으로 풀릴 새 없는 피로를 두 어깨와 눈꺼풀에 가득 담고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의식하지 못한 채, 비교적 한가한 전철에 몸을 싣고 그날도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어렵게 부릅뜨다 신문의 진한 석유냄새에 힐끗 옆을 돌아본 순간, 3면의 커다랗고 까만 고딕체글씨가 한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감전이라도 당한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부의 뜻밖의 선심에 의견 분분

“여행원 시험 폐지”

“성차별 없게 남자와 함께 채용”

은행에 근무하는 여직원이자 당장 내년에 있을 소위 ‘성전환시험’이라 일컬어지는 전직고시의 대상이기도 한 나로서는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출근하자마자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직원들간에 화제의 대상이 되었고, 정부의 뜻밖의 선심에 어리둥절해 하면서 다시 신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왠지 석연치 않았다. 그 사이 직원들간에는 찬반론이 벌어졌고 나름대로의 추측들로 사뭇 열기가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내가 그랬듯이 노동조합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결국은 일본식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된 수순으로 많은 여성 은행원들을 현혹시킬 단어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년 전부터 은행계에도 도입된다는 풍문이 돌던 일본식 신인사제도에 대하여 부당한 임금체계로 구성된 다른 나라의 제도로만 기억하던 나로선 책을 뒤적여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다. 신인사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 및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로 성차별을 업무차별로 정당화 내지는 고정화시킬 우려가 있는 제도이다.

신인사제도 도입은 결사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는 데 생각이 미쳤을 땐 여성조합원 아니 전금융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부에서 선심을 쓰듯이 발표한 이것이 달콤한 꿀인지, 꿀을 가장한 독인지를

금융인들이 판별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와 그에 따르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총체적 역할을 할 구심점은 노동조합이다.

마침내 노동조합에서는 여행원제도 폐지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그 행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나도 준비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공청회에 앞서, 공청회를 준비하는 기본 취지와 그에 따르는 공청회의 중요성과 내용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작업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하게 된 조합원들의 반응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여실히 드러냈다.

“이제는 시험을 안 봐도 남성이 되는 겁니까”

“이제는 시험을 안 봐도 남성이 되는 겁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입행해서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급여가 적은 것도 억울한데 ‘남성’이라는 위치 확보를 위해 또 시험을 치러야 한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구요.”

“거 신인사제도라는 일본 제도가 곧 도입된다던데 일간 시험도 폐지되고 여자 남자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해서 동일하게 일을 할 수 있다니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인가 보죠?”

“신인사제도 그 좋은 제도를 왜 수용하느냐 마느냐를 문제 삼는 거죠? 정부에서 모처럼 내년에 있을 선거를 위한 선심이겠지만 어쨌든 주겠다는데 아쉬운 대로 받고 보죠 뭐.”

“전 은행생활 13년째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전직고시도 합격하고 책임자고시도 합격했는데 이제 와서 제도가 바뀐다면 이제껏 받아왔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리 고참 여직원들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일부 의식적인 여성 조합원들은 날카로운 지적 내지 충고와 함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앞으로의 대안을 되묻기도 했다.

“여행원제도나 전직고사나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을 무슨 큰 선심인 양 떠들어 발표한 것도 우습지만 그런 허울 좋은 눈가림으로 현혹시켜 놓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할까 고민하는 모습들을 상상하니 역겹기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투쟁 없는 쟁취란 없었고 강자가 알아서 미리 약자에게 베푸는 일이란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여직원들의 자리 배치를 일정한 사무직에만 고정시켜 인간의 기계화를 노리는 의도라구요. 신인사제도인지 뭔지는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돼요.”

“이번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지금의 이 문제를 어떻게 따내고 어떻게 대응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재신임의 향방이 결정될 겁니다.”

많은 조합원들의 반응을 알게 되자, 공청회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다. 여행원제 폐지라는 단순한 단어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신인사제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과 대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신인사제도 도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

물론 여행원제 폐지와 전직고시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문제는, 단순히 남녀의 기본적인 ‘차이’는 무시되고 ‘차별’만을 보아 온 은행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 차별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여행원제는 반드시 시급하게 철폐돼야 한다. 하지만 그 해결과정에서 여행원제 폐지가 정부와 사용자측이 구상하는 신인사제도, 직무직능급 도입의 수순과정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이번 조치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존 여행원들은 스스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 여행원문제는 남녀단일호봉체계를 쟁취해낼 때만이 진정한 평등권이 실현되기 때문에 대정부투쟁을 통해 특별예산을 쟁취하여 남녀 단일호봉체계를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정부예산투쟁 등 실질예산확보투쟁 및 단협투쟁 등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상황을 가장 유리하게 전개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여행원들의 근본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여행원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승진하여 더 나은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은행측에서 여행원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실시하려고 할 때 개개인의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 함께 나아갈 때만이 개인적인 노력과 능력도 빛이 날 것이다.

<자료> 여행원제 폐지에 대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의 성명서

성 명 서

정부와 사용자는 현직여성근로자들의 차별대우 개선에 앞장서라

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차별적인 남·녀고용관행으로 논란이 되어온 은행의 여행원 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지금까지 제1금융권의 은행원 채용은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 대졸자의 경우 남녀구분 없이 모집 임용해온 반면 고졸의 경우 남자는 초급행원으로 여자는 여행원으로 구분해 실시돼 왔다고 지적하고 여행원제도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시달한 바 있다.

이 지침에서 제1금융권의 여행원 분리채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과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는 은행원의 직종을 직무내용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하고 각 직종별로 남녀에게 동등한 채용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취업규칙 개선도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현실을 망각하고 알맹이가 빠진 정부의 행정편의 주의 · 적당주의적인 발상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연맹은 일찍이 지난 90년 1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투쟁을 선언하고 정부가 87년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실현을 위하여 특별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탄원서와 호소문을 정부요로에 제출한 바 있으며, 그동안 대정부·사용자를 상대로 꾸준히 교섭을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91임금교섭 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이 남·녀 승호금액 차액을 동일하게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철저히 묵살당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여행원 임금체계는 작년 1월 1일부터 초임호봉만 같아졌을 뿐 여행원의 직책수당과 호봉승급액이 남행원보다 적고, 근무년수가 길어질수록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기존 여행원들에게 불리한 남녀분리호봉, 직책수당체계 격차 시정이 없는 새로 채용되는 여행원 제한된 지침이기 때문에 자칫 시간이 지나 신여행원의 임금수준이 기존 여행원들보다 높아지게 되는 임금체계의 혼란은 물론이요, 현재 사용자측이 검토중인 신인사제도 직무급도입을 가속화시키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이렇다 할 격차시정 없는, 단순히 남녀구별채용금지 지침으로 기존 여성근로자들의 기대심리만 유발시키고, 전체 여성근로자들을 향한 선심행정이라는 구태의연한 자세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남녀분리 호봉·직책수당체

계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예산확보 등, 남녀고용평등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기존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창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15만 금융인은 지금까지의 남녀격차의 상조는 현 여성근로자들의 불만을 심화시키고 조직 내 갈등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평화 정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여성 근로자들과의 지속적 동반자적 동지애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991. 7. 18.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용